연꽃 주위 돌며 나를 내려 놓다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김현수 작가가 무각사에 설치한 대형 작품 '백련'.

김현수 작가

18개 꽃잎 지름 5.5m…재독작가 김현수 '백련' 무각사에 설치
2015년 뮌헨시 공공미술 선정 첫 선…'108배 퍼포먼스' 눈길

지난 2020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5·18 40주년 기념전 '별이 된 사람들'전은 기존의 오월 작품과는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어 흥미로웠다. 당시 미술관 로비에 전시됐던 재독작가 김현수의 '백련'은 커다란 연꽃 조형물과 함께 108배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다.

2년여 만에 도심 사찰 무각사에 '백련'이 피었다. 미술관 전시 당시 이 작품을 눈여겨본 무각사 청학스님의 요청을 받은 김현수(67) 작가는 지난 4월 중순 독일에서 들어와 작품을 조립하고 설치했다. 사찰 내 작은 방에 머물며 작업을 진행한 그는 5·18 행사 등을 둘러보고 베를린으로 돌아갔다. 무각사에서 만난 그는 "사찰에서 생활한 건 처음인데 아침 예불도 보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백련'은 지난 2015년 뮌헨시 공공미술에 선정돼 첫 선을 보였다. 특수 코팅한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백련'은 지름 5m 50㎝, 높이 2m40㎝, 18개 꽃잎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18개의 대형 알루미늄 판은 하나 하나가 모양이 달라 독일 공장에서 제작할 당시 애를 먹었었다. 이번 무각사 전시에서는 연꽃 주위에 빙 둘러 기와를 깔았다.

지난 2015년 뮌헨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백련'

"모든 종교와 문화, 인종, 이데올로기를 넘어 자기를 내려놓음으로서 많은 것을 포용하는 의미를 담아 연꽃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흔히 연꽃하면 불교를 떠올리는데 이집트, 그리스에서도 추앙받는 사유의 꽃이었어요. 로마의 건축물에도 다 연꽃 문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불교에서 더 많은 사유의 의미를 담아 발전시킨 거죠."

김 작가는 "이 작품을 함께 나눈 이들, 108배를 올린 이들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는 게 의미가 있어 복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련'은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 8일 첫 선을 보였고, 연꽃돌이와 108배 명상도 열렸다. 작품은 대웅전 앞에 설치됐으며 뮌헨 시청앞과 상트 오틸리언 수도원 등에서 열린 108배 행사 모습이 담긴 영상도 만날 수 있다.

"독일 전시에는 어른, 어린이, 장애인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어요. 왜 108배를 하는지 궁금해하던 이방인들은 108배를 다 마치고 나서는 의미를 묻지 않더군요. 종교적 의미 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라는 것을 안 거죠. 유럽에서는 종교적 숭배라고 생각하면 거부감을 보입니다. 종교적 의미 등을 떠나 당신 마음을 한번쯤은 내려놓아 봐라. 이 바쁜 세상에서 몇분 동안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무각사는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힐링을 위해 찾는 이들이 많은 곳이다. 연꽃 주위를 느리게 돌면서 발길을 옮길 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작품을 감상하면 좋을 듯하다.

가부장적 의식이 강한 경북 의성 유교 집안에서 자란 김 작가는 '여자'라는 굴레에 갇혀 거의 말을 잃고 지냈다.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던 그는 언제나 의지가 됐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서울로 올라가 금속 공예 작가로 활동했다. 이후 "홀로 서야겠다"는 마음에 20대 후반인 1984년 한국을 떠나 독일로 갔고, 뮌헨국립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작업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만연했던 외국인 차별을 겪으며 그는 '살기 위해' 작업했다.

"독일에서의 제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인간에 대한 실망과 원망도 많았구요. 힌데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해치는 것이더군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나를 비우는 건 정말 어렵더군요. 작업을 할 때면 나를 잊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나에게 몰두하는 것 그게 불교가 추구하는 마음 상태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마음의 등불이었던 엄마는 독일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했고, 큰 호응을 얻었다. 성당 안에 전시됐던 설치 작품 '세상 모든 어머니에게 바침'은 각국 문화권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은 모습을 형상화했고, 알록달록한 '색동천'으로 조각을 감쌌다.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이야기한 작품이다.

김 작가는 2014년부터 4년 정도 광양에 머물렀었다. 굴 따는 할머니, 시장 할머니들과 마음을 터놓고 지낸 시간이었고, 영상 작업도 진행했다. 지금 그는 당시 한국에 머물며 작업했던 다큐멘터리를 다듬고 있다. 촛불 현장을 경험했던 그는 1900년부터 촛불정국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담은 2시간 30분 분량의 다큐를 만들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세상 살면서 겸손과 겸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구요. 유럽 사람들이 동양사상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런 맥락인 듯해요. 자신을 들여다 보고, 누군가가 힘들 때 함께 공감하는 마음은 잃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연꽃 주위를 서서히 돌며 나를 한번쯤 내려 놓는 것, 바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휴식의 순간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양인모,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한국인 최초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27·사진)가 세계적인 권위의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시벨리우스(1865~1957)의 이름을 딴 이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는 만 30세 이하의 바이올리니스트를 위한 세계적인 콩쿠르로, 5년마다 헬싱키에서 열린다. 1965년 제1회 대회 우승자인 올레그 카간을 비롯해 빅토리아 뮬로바,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세르게이 하차투리안 등 거장들을 배출했다.

제12회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29일(현지시간) 양인모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미국의 네이선 멜처, 3위는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우도비첸코가 각각 차지했다. 올해는 240명이 지원했다.

양인모는 우승으로 3만유로(약 4000만원)의 상금과 함께 시벨리우스 콩쿠르 사상 처음으로 NFT(대체불가토큰) 트로피도 받았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1772년 제작된 고악기인 지오반니 바티스타 과다니니도 후원받게 됐다.

양인모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을 거쳐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수학 중이며, 2015년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 '새로운 세대의 가장 재능 있는 젊은 현악 거장'으로 꼽혔다.

한국인 연주자로는 신지아가 3위, 백주영이 4위에 올랐고, 정경화의 제자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텔 리가 우승했다.

/연합뉴스

양인숙 동시집 '둥실둥실 하얀기차' 펴내

"이 동시집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하는 언어들이다. "할머니 다리가 아파, 쭈북쭈북!" 내 곁에 자면서 잠결에 하는 소리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성장통으로 다리가 아프니 주물러 달라는 것이었다."

양인숙 시인이 펴낸 동시집 '둥실둥실 하얀기차'(쏠트라인)에는 아이들의 예쁜 언어가 살아 있다. 네 아이들하고 놀며 얻은 언어를 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번 작품들은 지난해 잠서 미국에 건너가 손자, 손녀들과 함께했던 일상이 모티브가 됐다. 네 번째 손자 출산과 맞물려 미국에 간 경험이 고스란히 작품으로 전이됐다. 세 아이를 누군가는 맡아야 할 상황에서 할머니 외에는 대안이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작품집은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묶여진 점이 눈에 띈다. "자신이 써 준 글이 책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말에 아이는 두 눈을 반짝였다"는 말에서 미국에 있는 손주들을 위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읽혀진다.

"파란 하늘만 다닐 수 있어./ 하얀 고래처럼/ 비행기가 지나며 만든 기차야.// 그 하얀 기차에는/ 새만 탈 수 있을까?/ 아니야, 마음도 탈 수 있어.// 한국 가신/ 할머니 보고 싶은 내 마음도/ 둥실둥실 탈 수 있겠지."

표제시 '하얀 기차'는 비행기가 지나며 만든 하얀 구름을 아이들의 눈으로 그린 작품이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하얀 기차로 표현한 동심이 해맑기 그지없다. 화자는 그 기차에는 하늘의 새만 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떠난 할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도 태울 수 있다고 노래한다.

한편 저자는 200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춥니?'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지금까지 동시집 '웃긴다 웃겨 애기똥풀', '뒤뚱뒤뚱 노란 신호등'과 장편동화집 '복숭아는 무서워!' 등을 펴냈다. 광주문학상, 화순문학상, 불교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댄스컴퍼니 Sun&Friends' 광주무용제 대상

제31회 광주무용제에서 '댄스컴퍼니 Sun&Friends'〈사진〉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무용제는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광주시지회(지회장 나인숙)가 주관한 전국무용제 시 예선대회로 지난 2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경연에는 '황채은무용단', '진스발레컴퍼니', '김선희라온예술단'이 단체 부문에 솔로 앤 듀엣 부문에는 김운현이 참가했다.

댄스컴퍼니 Sun&Friends는 '인테그랄(integral)'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혼자일 수 없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갖가지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내는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몸으로 표현해냈다. 심사위원들은 무용수들이 기량이 고르며, 구성이 새롭고 표현력이 뛰어났다며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을 수상한 댄스컴퍼니 Sun&Friends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 31회 전국무용제 '생명과 낭만도시 목포, 대한민국 춤을 잇다!'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민자유대학 여름학기 개강

시민자유대학 2022년 여름학기(강좌별 8강)가 오는 6월7일부터 7월30일까지 열린다.

'노래 찾아 삼만리:한국대중음악과 시대상'(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은 임의진 시인이 강사로 참여한다. '주한미군과 팝송, 번안 가요의 총출동: 해외로부터 유입된 문화와의 충돌', '통기타와 무전여행, 김민기와 한대수 시대:청년들의 히피 청바지 문화', '걸그룹 원조에서 한류 K-pop의 세계정복사:춤과 꿈과 흥이 있는 대한민국'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이어진다.

'일상 속 영어, 여행 속 영어'(매주 수요일)는 조현주 광주남구생활문화센터장이 '자주 쓰는 영어 패턴'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경민 조선대 유럽언어문화학부 교수가 강사로 참여하는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사회'(매주 목요일)에서는 '아르헨티나인 보르헤스와 '남부' ', '쿠바의 네오 바르크와 문화혁명' 등을 만난다. 세 강좌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임의진

'빛나는 도시, 건강한 건축'(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은 광주 교육연수원에서 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공동체, 예술, 환경, 인문 등의 키워드를 통해 광주의 도시 비전을 찾아보는 강좌로 '人紋 도시와 人文 도시'(류재한 전남대 불문과 교수), '현대 도시·건축의 흐름'(함인선 광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수강료 13만원. 모든 강좌는 오는 6월6일까지 시민자유대학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